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7월 25일(목) 총 3매		세계 10대 도시 인천
담당 부서	환경기후정책과	담 당 자	• 탄소중립전략팀장 • 담당자		윤은주 ☎440-8591 조민준 ☎440-859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시민사회,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 기후위기사계 데드라인 5년 → 4년, 기후위기 경각심 환기 -
- ‘잔반 Zero’ , ‘텀블러 나눠쓰기’ 등 300만 인천기후시민 생활실천 확대 촉구 -

인천을 대표하는 시민, 사회단체가 인천시청 기후위기사계 앞에 모여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23일자로 기후위기사계의 데드라인이 5년에서 4년으로 해가 바뀌었으며, 국제기후행동단체 ‘더클라이미트클락(The Climate Clock)’은 매년 기후위기사계의 해가 바뀌는 날을 기후 비상 날로 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탄소중립 기후시민공동체 등 인천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20여 명이 참여하여 잔반 제로(zero), 1회용품 근절, 에너지 절약, B.N.D. (Buy Nothing Day) 실천, 아나바다 운동 등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다짐하고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 주변을 행진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관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류제훈 팀장은 “탄소중립 실천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탄소중립 컨설팅,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교육, 탄소중립 기후 시민 공동체 지원 등 탄소중립 생활 실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기후시민 공동체 사업은 탄소중립 시민 실천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인천을 대표하는 교육, 종교, 공동주택 등 21개 단체가 참여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기후시민이 되어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 30분)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4. 7. 25.(목) 11:30 / 시청 본관 기후위기사계
* 캠페인 종료 후 오찬 실시
- 참 석 자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인천YWCA 등 탄소중립 기후시민공동체 20여명
- 주요내용 : 탄소중립 시민실천문화 확산 피켓캠페인
 - 잔반제로(식판), 일회용품 근절(텀블러, 에코백), 에너지 절약(부채),
B.N.D.(Buy Nothing Day) 실천, 아나바다 운동 등 캠페인

※ 행사 피켓

